

대학에서의 출석 부르기 와 자율성

최 협

전남대 인류학과 교수



교육 경력이 일천하지만 그 동안 가장 어려웠던 일은 대학에 부임한 지 2년이 되어서 겪은 일이다. 모든 일에 신참들이 그러하듯 의욕이 앞섰고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여, 강의에 열과 성을 다한 대신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았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의 성적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전공과목뿐 아니라 대단위 교양과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학기 성적처리를 끝낸 어느 날 순박해 보이는 한 남학생이 연구실을 찾아왔다. 사범대 졸업반으로 교생실습 때문에 인류학 개론 강의를 많이 빠져 시험을 잘못 보았기에 낙제점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였고, 따라서 절대로 재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하였다. 그 후 그 학생은 여

러 차례 내 연구실 주변을 서성거렸으며 그 때마다 마주치면 호통을 쳐서 보냈다. 졸업이 가까워진 어느 날 그 학생은 통사정을 하였다. 교양과목 하나 때문에 졸업을 못하게 되면 교사 발령도 무효가 되는데, 시골의 가족은 모두 자기가 이번에 졸업을 하고 자랑스러운 교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시골에서 홀어머니가 어렵게 농사짓고 품팔아 뒷바라지를 하시기에 자신도 줄곧 고학을 해 왔고 돌보아야 할 동생들 때문에도 빨리 직장을 가져야 하는 형편이었다.

성실하게 살아온 한 청년의 삶이 교양과목 시험 하나 때문에 크게 흐트러지게 되는 와중에 내가 서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잘 못 본 시험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다. 미리 그러한 사정을 헤아렸다면 사범대 졸업반임을 감안하여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은 다른 학생들에게 공평치 못한 일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원칙을 고집하였던 것이다. 여하튼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할 날을 고대하고 계시는 시골의 할머니를 생각하며 무척이나 고민을 많이 했다. 그리고 그 학생을 붙잡고 앉아 내린 결론은 이 일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다. 다만 내가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그 힘든 과정을 돌이켜 같이 나누어 질 필요를 느꼈다. 우선 가정 형편 때문에 다음 학기 등록금 마련이 어려울 것이니, 그것은 내가 도울 것을 제의했다. 그리고 학생 자신이 앞으로 교사로서 스승의 길을 걸을 것이니, 학생들에게 삶의 바른길을 가르쳐야 함을 명심하고 이번 일을 스스로 반성과 배움의 기회로 삼을 것을 설득했다. 또한 시골의 어머님과 가족에게도 부끄럽더라도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절망과 고민으로 괴로워하던 그 학생은 내가 그를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태도에 점차 감사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나의 재정적 도움을 끝내 사양하였다. 2년 뒤 나는 그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힘든 시련의 시기를 극복하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배움의 기회였는지를 깊이 깨닫고 있다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이 경험으로 교육의 참된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참다

운 교육은 전인적인 것이며, 그것은 강의실에서 지식을 주고 받는 행위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 뒤 나는 배움의 현장에서 또 다른 많은 경험을 했고, 또한 가르침의 여정에서 몸소 참다운 교육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훌륭한 스승들을 주변에서 만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배운 교육의 본질은 교과서나 교육 법령에서 보게 되는 공허함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들이다. 그래서 오늘도 교육의 현장에서 열심히 주위를 살피며 스스로 학생임을 자처해 본다. 대학 강단에 선 지 18년째인 지금, 대학생 시절 관념적으로 주장했던 '자유로운 지성'이나 '자율적 인간'과 같은 개념은 이제 상당히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교육의 어려움과 그 오묘함을 갈수록 느끼게 되는 것과는 달리 오늘의 대학 현실은 본질적인 것보다는 지엽적인 문제에 더욱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아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최근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관료들의 한결같은 구호성 선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작년 한총련 사태 이후 전남대에는 교육부 감사반이 들이닥쳤고, 곧이어 모든 교수들에게 지난 해부터의 출석부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출석부를 보관하지 않거나 제출을 안 한 교수에게는 총장 명의의 경고장이 주어졌으며, 그 와중에서 한총련 간부로서 이미 구속되어 있던 학생들에게 성적을 준 교수 세 명이 적발되었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이를 받아 중앙의 모 일간지는 '학생에 아부하는 대학교수'라는 제하의 사

설로 분위기를 잡았다. 무슨 까닭인지 검찰의 공안부에서는 그 세 명의 교수들에게 조사할 것이 있다고 출두를 요구하였고, 그들은 결국 조사를 받았다. 대학 교수가 강의실에서 출석을 부르는 일로 공안 검찰이 조사를 한 예는 아마 세계사적으로도 희한한 일일 것이다. 아무튼 그들은 기어코 교육부 징계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용두사미 격으로 경고 처분되었다고 들었다. 징계에 회부된 교수 중의 한 분은 대단위 교양과목에서도 출석을 부르는 것으로 이름이 나 있는데, 실제로 문제가 된 교과목에서도 꼬박 출석을 불렀다고 한다. 그렇다면 150여 명이 넘는 대단위 강의에서 학생 중 누가 대리로 대답을 했을 경우, 교수가 그것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 교수의 기록에 의하면, 구속된 학생은 중간고사를 보았고 구속되기 전까지 부과된 과제물도 제출했기에 그에 합당한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러한 일이 21세기를 코 앞에 둔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문제의 본질은 아직도 교육의 척도를 형식적 기준에 묶어매어 놓고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대학교육은 오늘날에도 관료적 탁상공론과 감시와 규제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대학이 정상적 기능을 하는가를 입증하기 위하여 법정 수업 시간을 명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을 모든 교수가 강의실에서 반드시 출석을 불려 모든 개별 학생들이 법정 수업일수를 채웠는가를 감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치졸한 법의 해석이다. 학위 공부와 연구를 위해 10여 년간 외국의 여러 대학들을 다녀 봤지만, 교수에게 출석 부르는 것을 강요하는 대학은 본 적이 없다. 특히 불란서의 그 유명한 파리 고등 사범 학교에서는 교수의 강의는 있으나, 학생들의 출석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실제로 3년간 강의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졸업한 학생도 있다고 들었다. 왜냐하면 그 대학의 지향 이념은 학생의 자율성을 키움으로써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인간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파리 고등 사범 출신들은 불란서 사회 각 부문에서 눈부신 활약을 해 오고 있다. 21세기는 개개인의 창의력이 중시되는 문화의 세기라고 모두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창의적 인간은 그렇게 앵무새처럼 구호로 외친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학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그리하여 자유로운 지성이 활개를 칠 때, 그것은 참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로 어느 때보다도 대학의 자율과 자유로운 지성이 필요한 때이다. ■

최 협/서울대에서 인류학을 전공하고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 인류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미국 하버드 앤칭 연구소 초빙교수와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 『부쉬맨과 레바스트로스』, 『Agricultural Change in America』, 『호남사회의 이해』(공저), 『자생적 지방 발전』(공저) 등을 발표하였다.